

정성희 연구위원, 문혜정 연구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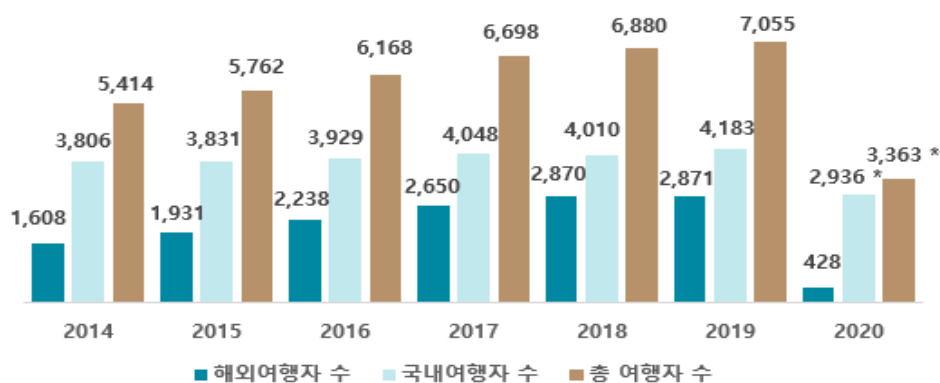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상과 연계된 ‘생활 여행’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되면서, 국내 여행보험시장은 2020년 3분기부터 조금씩 회복 양상을 보임. 해외 여행보험시장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보장 수요에 대응한 신상품 출시도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 보험산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민·관 파트너십 및 여행산업·보험산업의 협력을 통해, ‘WITH 코로나19 여행 수요’를 반영한 상품개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국내 여행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저비용항공사 성장 등으로 인한 해외여행 증가로 매년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유례없는 침체를 겪고 있음(그림 1) 참조)

- 국내 내국인의 해외여행자 수는 2014~2019년간 연평균 12%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85% 크게 감소함
- 국내 내국인의 국내여행자 수는 2014~2019년간 연평균 2%씩 증가해 왔으며, 국내여행자 수 또한 2020년 전년 대비 3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¹⁾

〈그림 1〉 국내 내국인 여행자 수 추이

(단위: 만 명)



주: 1) 2018년부터 국민여행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2018~2019년 국내여행자 수는 ‘15세 이상 전 국민 수×여행 경험률’로 산출함

2) {(국내 여행자 수-국내 여객 수)/국내 여행자 수}의 3개년(2017~2019년) 평균=20.4%

3) 2020년 국내여행자 수(2,936만 명)=2020년 국내선 여객 수(23,355,684)/(1-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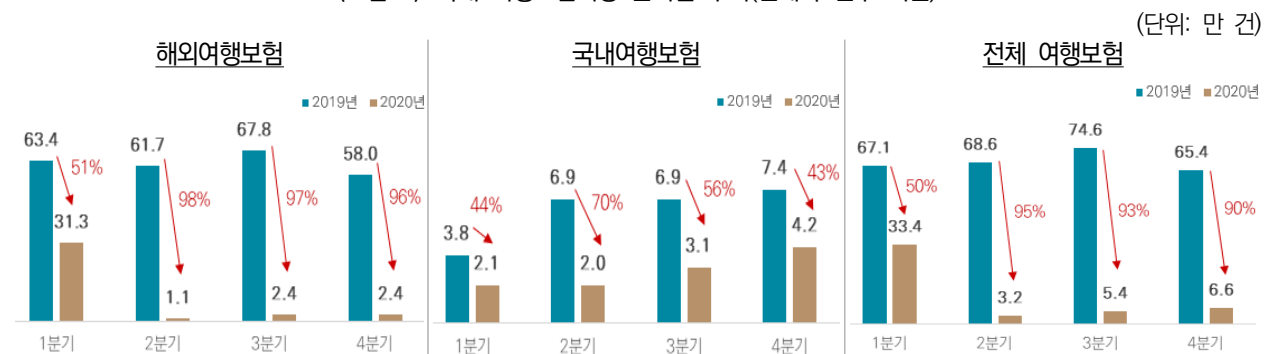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통계; 국민여행실태조사(~2017) 각 연도; 국민여행조사(2018~) 각 연도; 항공통계

1) 2020년 국내여행자 수는 한국관광통계의 국내여행자 수와 항공통계의 국내선 여객수의 차이가 국내여행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3년 평균치(20.4%)를 적용하여 구한 추정치임(2021년 6월 「국민여행조사」를 통해 실제 국내여행자 수 발표 예정임)

○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여행수요가 생활권역 내 일상과 연계된 '생활 여행'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여행보험 시장은 국내여행보험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 양상을 보임

- 코로나19로 기존의 '일상에서 벗어난' 여행방식이 대부분 어렵게 되면서 여행의 패러다임이 '일상 속의 여가'로 전환되는 추세임
 - 근교에서 짧은 휴가를 즐기거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야외활동²⁾·여가를 결합한 여행, 재택근무 추세에 따라 일과 여행을 연계한 워케이션(Work-ation)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국내여행보험의 신계약 건수는 2020년 2/4분기 전년 동기 대비 70.4% 감소하였으나, 3/4분기와 4/4분기에는 각각 56%, 43% 감소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2) 참조)

〈그림 2〉 국내 여행보험시장 분기별 추이(신계약 건수 기준)



자료: 6개 손해보험회사 통계(2019년 신계약 건수 기준 국내 여행보험시장 90.2% 점유함)

○ 해외 여행보험시장도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³⁾되고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보장 수요에 대응한 신상품 출시도 이루어지고 있음

- 태국 보건당국과 보험업계는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여행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최대 320만 바트(약 1억 2천만 원)를 보상하고, 사망할 경우 장례비, 시신 송환비 등으로 320만 바트를 지급하는 '코로나19 여행보험'을 관광업계의 요청에 따라 개발함
- 아랍에미리트의 제2의 항공사인 에티하드항공은 악사(AXA)와 협업하여 에티하드항공 이용객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진단 의료비용(최대 15만 유로(약 2억 원))과 격리비용(하루 최대 100유로(약 14만 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출시함
 - 필리핀 세부퍼시픽은 처브(Chubb)와 공동으로 필리핀 거주자에 한해 자사 항공기 탑승 당일부터 도착 후 2시간 이내 코로나19 양성 판정 시 치료 및 입원관련 비용에 대해 최대 1백만 페소(약 2천 3백만 원)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함

2) 2020년 캠핑장 수요가 전년 대비 73% 증가하는 등 아웃도어를 겸한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함; 한국관광공사(2020. 6), 『언택트시대의 여행 "S.A.F.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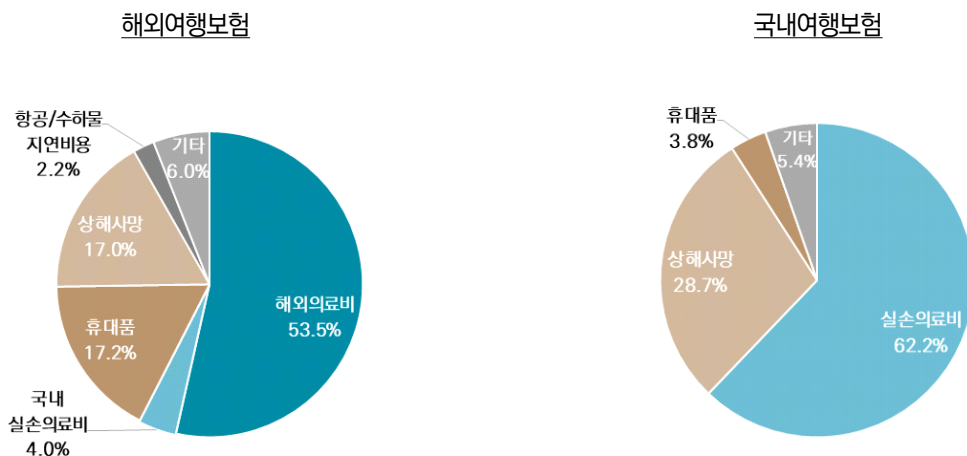
3)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여행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평균 65% 감소하였으며, 대륙별 감소 수준은 아시아·태평양(72%), 유럽(66%), 아프리카·중동(57%), 아메리카 대륙(55%) 순으로 조사됨; UNWTO(2020. 9), "World Tourism Barometer"

- 알리안츠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취소·중단, 여행 중 응급의료치료, 긴급 서비스⁴⁾ 등을 보장하는 코로나19 맞춤형 여행상품을 개발하였고, 일본 라인파이낸셜은 질병, 상해 등의 사유 이외에도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으로 항공, 숙박 등이 취소될 경우 취소수수료를 보상해 주는 여행 취소비용보상보험을 출시함⁵⁾

○ 국내에서도 여행 중 전염병 감염 및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한 여행 취소 우려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보장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보험산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민·관 파트너십 및 여행산업·보험산업의 협력을 통해, 'WITH 코로나19⁶⁾ 여행 수요'를 반영한 상품개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여행 국가들이 사전 통보 없이 입국 제한, 여행 제한, 자가격리 의무 등으로 해외여행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나 국내 여행보험상품 중 여행불편에 대한 보장은 해외여행보험의 항공기·수화물 지연비용 정도로, 코로나19 등에 따른 여행 취소·중단과 관련된 보장은 없음(〈그림 3〉 참조)
- 우리나라 보험산업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민·관 파트너십 및 여행산업·보험산업의 협력 등을 통한 코로나19 관련 신상품 출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내 여행산업이 중대한 위기를 겪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방역이 우수한 국가들 간의 협정⁷⁾을 통해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는 등 여행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긴요한 시점임

〈그림 3〉 국내 여행보험 담보 비중(2019년 보험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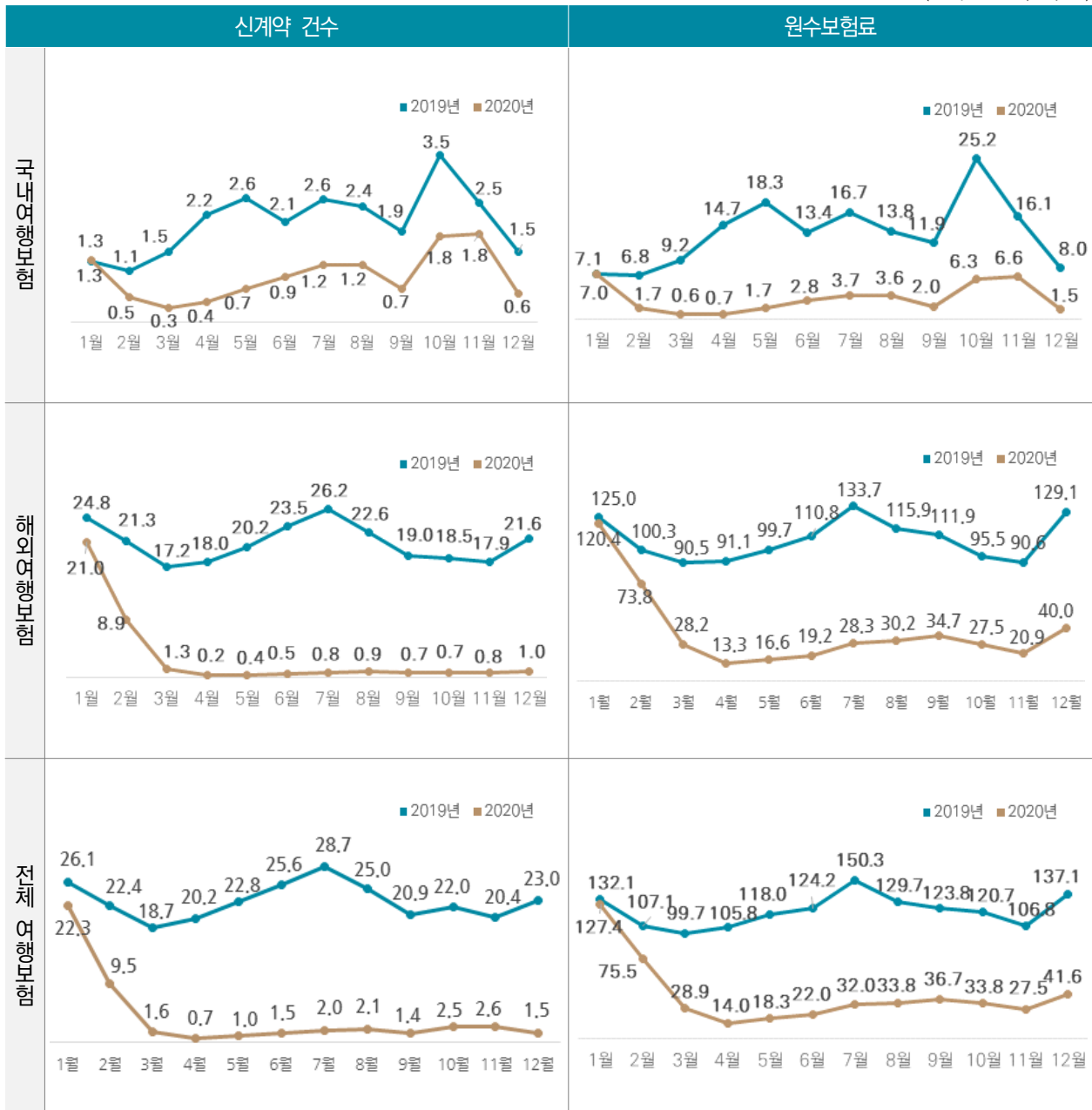


자료: 6개 손해보험회사 통계(2019년 신계약 건수 기준 국내 여행보험시장 90.2% 점유함)

- 4) 여행 스케줄 취소 및 변경, 교통편 변경, 해외여행 중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알려주고 예약 등 관련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함
- 5) 정성희·문혜정(2020. 5. 11),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보험시장 영향과 과제」,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6)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종식은 어렵다는 인식하에 '코로나와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표명하는 표현임
- 7) 일례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홍콩과 싱가포르 간 '항공 트래블 버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방역시스템과 감염 통제가 우수한 국가들 간의 협정을 통해 협정 대상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코로나19 검사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으면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임

부록: 국내 여행보험시장 월별 추이

(단위: 만 건, 억 원)



자료: 6개 손해보험회사 통계(2019년 신계약 건수 기준 국내 여행보험시장 90.2% 점유함)